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소돈 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을 펼치며 제34대 임기 첫 날을 시작했다. 우리사회 서민과 약자들을 보살피고 이들과 함께 하는 종단이 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행보다. 지난 제33대 총무원장 임기 중에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매월 한 차례 시범복지시설 및 단체, 지소득층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층을 만나며 자비나눔의 실천과 종교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앞으로 이 기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보교원장 지원스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자, 일반직 종무원 200여명은 지난 10월31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월광 스님과 나눔 봉사를 펼치며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웃을 보듬었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 한 곳. 마을 주민들이 새벽부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이름이 붙었다. 현재 210여 가구 약 400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검정 땀방울에 개미마을 웃음꽃 피다

■ 3대째 집짓기 개미마을 쌀과 연탄 나눔 봉사 '권장'

이날 총무원장 스님과 종무원, 봉사자들은 개미마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 200여 가구에 20kg 쌀 1포씩과 연탄을 사용하는 80세대에 연탄 400장을 전달했다. 마을 인근 사찰인 서울 화계사에서도 주지 월운스님과 신도들이 봉사에 함께 함을 보였다.

총무원장 스님과 미개마을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2010년 11월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종무원들과 함께 연탄과 쌀을 가져와서 직접 배달하며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봉사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개미마을은 한세도 와서 봤사했던 곳이다. 모두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달라"며 "진정을 농촌지 않고 안정에 유의하며 봉사를 펼쳐 달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직접 연탄과 쌀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계을을 보내기를 기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담부에 마을 주민들도 밝게 산사대의 불교계의 나눔에 화답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이러운 곳에 손을 내밀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총무원장 스님과 불교계의 자비행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자들에 앞두는 한 가구에 30여장씩 연탄을 배달하는 것. 한 장에 3천kg 하는 연탄 나르기를 반복해야 하는 연탄의 없은 작업이었다. 마을 입구부터 집집마다 스스로 종무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분주하던 연탄 배달이 시작됐다. 연탄 나르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의 이마에는 이내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힘든 내색 없이 함께 연탄을 날랐다. 쉴굴에는 시켜연 연탄 그들이 묻고 연탄을 나르는 팔도 금세 무거워졌지만 표정은 연신

스님 제기종무원 하나 둘
각 가정 인터라방처럼 얹어
연탄 쌀 톡집없이 전달

팔은 금세 무거워졌지만
'검정 얼굴' 은 더 밝아지고
고단한 주민들은
'또 와줘서 고맙다' 고
모처럼 허리 펴고 '반색'

붙은 모습이었다. 조계종의 훈훈한 보시행으로 모처럼 개미마을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50년 넘게 개미마을에 살고 있는는 김판선(77세) 할머니는 "연세도 드시셔서 연탄과 쌀을 주셨는데 이렇게 모시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봉사활다는 것이 여러은 일인데 불교계에서 많이 와주셔서 마음도 뜻뜻하다"고 말했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 한 곳으로 한두 명이 다니기도 힘든 비탈길이어서 고령의 노인들로서는 잊지 않고 찾아온 조계종 종무원들이 바로 천사들보다다. 연탄을 나르는 스님과 일반 처럼. 인간 욕정랑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고마움에 한 참이는는 연탄을 인자서 사 감겨 한번 총무원장 스님의 손을 잡아 잤었다. 신재호 기자 sjh@ibulgyo.com

◀

스님과 종무원들을 반기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에 참가자들의 얼도 절로 났다. 사회에 자양대 삼임이사 원콘스님은 "시절의 약자를 보살피기 위해 입기를 시작하여 총무원장 스님이 기장 소외된 곳을 찾아 직접 연탄을 나르고 출산수원하시는 모습이 3년 집행부의 마음가짐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봉사활동 통해 우리사회 소외된 곳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재단도 앞으로 집행부의 기조에 맞춰 자비나눔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에 참가한 유남숙 총무부 행사기획팀 주임은 "봉사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종무원으로서 내가 일해고 있는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이 더 큰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한다운동별 지원단 진윤자 보지 총무원장 스님 취임을 맞아 아한다운동별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 실천해 오미가 큰 것다. 함께 봉사해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심태규 기자 cha1818@ibulgyo.com

대원상 포교대상 월주스님 특별상에 '풍경소리' 선정

진흥원, 특별상 등 결과 발표…19일 시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심팀자인 21일) 대원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1회 대원상 출가부문 포교대상 대상수상자에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이 선정됐다. 또 포교대상 특별상에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이 대표로 있는 사회혜의 포교상 '풍경소리' 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10월31일 열린심 각 부분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원상 포교대상 출가부문 대상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특별상에 불교단체 '풍경소리', 재가부문에 유교 12사대부 군법당 법용사 주지 남정 검갑영 법사가 선정됐다.

지난 2003년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한 월주스님은 지난 10년 동안 관심고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아프리카 케냐 등지에서 생명의 우물사업, 농장운영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초등학교와 유치원 건립, 아동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지역 나눔에 앞장서 왔다.

1999년 설립된 법용원 전라는 사원들에 모양인 불경소리대표 선묵스님는 전국 지하철과 봉도 역사 내에 23는개의 포교계시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문화포교를 전개했다. 김갑영 법사는 현역 군승으로 군장병들을 위한 군법당 건립과 수계법회를 통해 군포교에 앞장서 왔다.

이와 더불어 포교대상 재가부분 대상수상자가 없으며, 특별상에 재가불자 나눔 공동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경선)와 법실신문사, 홈스테이, 벽화공장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나면보리라의 대안학교 수업현장 등 단체들은 입양이 준비돼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15일까지 온라인(www.yhakorea.org)으로 라면 된다.

지구촌공생회기명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안목을 가진고 청소년들 간의 국제 교류의 소중한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YBA는 청년교류와 국제연대에 주력하는 심팀 여러 봉불교 NGO단체이다.

홍다영 기자 hong0404@ibulgyo.com

월주스님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선묵스님
홈스테이 대표

2014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불전번역학 - 심전불교학 (조교,사회) - 문화예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불전번역학 - 심전불교학 (조교,사회)	15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법에 의해서 위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13. 10. 21(월) ~ 2013. 11. 27(수) 17:00까지 (대학원 교학처)
2) 원서 접수 : 2013. 11. 14(목) ~ 2013. 11. 27(수) 17:00까지 (대학원 교학처)
3) 전 형 일 : 2013. 12. 4(수) 13 : 00(석사과정), 14 : 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13. 12. 10(화)
5) 등록 기간 : 2013. 12. 30(월) ~ 2014. 1. 10(금)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정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2) 시간 : 2013. 12. 4(수) 13 : 00 (석사과정)
14 : 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번호를 성적 기재된) 1부.
5) 최종수재증명서 (조계종 종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해당 종무원장의 추천서 (한 종단 소임)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증명사진 (6매 제출 (가로 3 · 세로 4cm)
※ 학사학위 및 석사과정수여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졸업 후, 2014.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전형 및 선형요
1) 원서료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석사과정 6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3)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의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운두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전화 : 031)980-7864(대표) / 7864) FAX : 031)980-7863

특전 : 1)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교시법사명명에 의거 3등 교시 중수 시 자격제 혜택이 있음.
2) 조계종 승려/구족계수자자 및 학년생 구족계수자계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3) 학업 중 수학중 상업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간 전액 장학 혜택부여
4)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031)980-7713~5